

2010 약제별 세계 농약시장 전망

# 2분기 회복세로 돌아서 평균 3.2% 증가 예상

살충제 5.0%, 살균제 5.3%, 기타제 4.4%의 상승이 전망되며, 가장 약세가 예상되는 제초제 시장은 글라이포세이트의 과다공급과 가격경쟁심화로 1%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 제초제 +1.0% 소폭 증가 전망

2010년 가장 약세가 예상되는 분야는 제초제 시장이다. 금년도 판매액은 1.0% 정도만 소폭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주요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로, 미국은 특히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의 과다공급과 가격경쟁심화로 마이너스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수요 또한 하반기 비선택성 시장 축소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글라이포세이트 저항성작물에 대한 농약 사용량이 증가해야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몬산토의 경쟁업체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는 새로운 전략 제시로 현재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라이포세이트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문제들은 다른 비선택성제초제 가령 글루포시네이트

(glufosinate)와 파라콰트(paraquat)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수요는 좀더 싼 글라이포세이트 제품으로 대체됨으로써 어느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글라이포세이트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엘은 이미 이번 분기에 글루포시네이트의 가격을 낮추었다. 한편으로는 글라이포세이트에 대한 잡초의 저항성은 글루포시네이트 저항성 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성 제초제에도 글루포시네이트의 사용을 초래할 것이다. 선택성 제초제 판매는 저조한 출발을 보였으나, 2분기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형세로 현재 호전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글라이포세이트 저항성 잡초에 대해 효과가 있는 화학제품들은 면화와 콩에서 특히 많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곡물류에 사용되는 설폰닐우레아계(sulfonyl

**2010 약제별 시장전망**

약제별 판매액(\$m)	2009	2010F	증가율(%)
제초제	17,869	18,040	+1.0
살충제	10,195	10,701	+5.0
살균제	10,244	10,783	+5.3
기 타	1,854	1,935	+4.4
계	40,162	41,459	+3.2

\* 출처 : Agrochemical Monitor 196-Q1 June 2010, in Cropnosis

lureas) 및 페녹시계(phenoxy) 제초제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판매는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살충제 +5.0% 상승 전망**

살충제 판매액은 2010년도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신규제품의 출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듀폰의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은 저사용량과 높은 안전성을 겸비함으로써 전 세계 농가로부터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neonicotinoids)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신젠타의 티아메톡삼(thiamethoxam)은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의 혼합제를 선보임으로써 수익을 낼 것이다. 이미 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는 여전히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계의 가장

큰 품목이나, 중국의 특허기간 만료제품 공급으로 인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물량이 다음으로 큰 피레스로이드계(pyrethroids)도 가격에 대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오래된 제품으로 유기인계(organophosphates)나 카바메이트계(carbamates)의 사용은 국제적 규제제한으로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 변형 살충제 저항성 작물 확대는 나비목 해충 및 토양뿌리선충 방제에 대한 살포물량의 추가적 감소를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감소는 특히 고가의 종자에 대한 종자처리제의 많은 수용으로 부분적 상쇄가 이루어질 것이다. 년초보다 호전된 기후 여건은 북부 및 라틴아메리카, 인도, 극동지역에서 살충제의 많은 수요를 유도할 것이다. 미국은 콩에 진딧물의 수 증가가 살충제 판매증가를 북돋우고 있다.

**살균제 +5.3% 증가 전망**

살균제 판매액은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5.3%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살균제 품목은 양호한 조건덕택에 현재 이익을 계속 내고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모두에서 분얼작물(emerged crop)에 농가 방제 프로그램이 시작됨으로써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다른 인도, 오스트리아, 중동지역은 강우량 증가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는 엘니뇨의 오랜 영향으로 때 아닌 건기를 맞고 있다. 이 영향은 올 2분기에 들어서면서 경감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난 1분기 콩 녹병 살균제 분야가 크게 증가했다. 판매는 강우 추세와 기온이 유리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더 많은 증가가 예측된다. 그러나 미국은 올초 혹독한 겨울로 인해 동면 포자의 평균 밀도 감소로 녹병 시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곡물류 살균제는 낮은 곡물가격으로 큰 폭의 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식물생육을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만은 다소나마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옥수수류의 경우 녹병과 회색점무늬병과 같은 병 방제 약제는 증가할 것이다. 종자처리제 판매액은 고가의 종자의 수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기타 +4.4% 증가 전망**

그 외 약제는 4.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특히 면화, 종자유의 생산 조정제와 곡물 훈증제에 따른 것이다. Y

**건배~사 모음**

**술자리 끝낼 때**

- 초가집  
초지일관 가자 집으로, 2차는 없다
- 119를 위하여  
한가지 술을, 1차에 밤 9시까지만 먹기
- 222를 위하여  
2가지 술을 섞지 않고 2잔 이상 권하지 않고 2차는 절대 없음
- 892를 위하여  
8시에서 9시까지 끝내고 2차 없음
- 마돈나  
마시고 돈내고 나가자(마지막 술잔 비울 때)

